

만공 · 만해 · 김구의 독립운동 루트

김광식*

• 목 차 •

- I. 서언
- II. 만공이 만해에게 독립자금 전달
- III. 만해와 만공의 인연
- IV. 만해와 김구, 비밀 연락
- V. 결어

* 동국대 특임교수.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119-156.

한글요약

본 고찰은 만공(滿空)-만해(萬海)-김구(金九)로 이어지는 독립자금의 전달, 독립운동 연결의 루트, 민족불교와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시론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수덕사 고승인 만공에 대한 연구는 경허의 제자, 불교사상, 선학원 등에 대한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만공은 만해 한용운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구술 증언이 최근에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만공의 독립 정신은 1937년 총독부에서 조선 총독을 경책한 사건, 1941년 선학원에서의 저항 범회, 일제 말기 간월암에서 독립을 위한 천일 기도 등에서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덕사와 만공의 제자들은 그를 근거로 만공을 독립운동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가 당국은 객관적인 자료의 미비라는 이유로 만공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보류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글에서 만공이 만해 한용운에게 전달된 독립자금의 내용 및 성격, 만해와 만공의 관련성, 만해와 김구(중국, 임시정부 책임자)에 있었던 비밀 연락 채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이 글이 만공, 만해 한용운의 민족의식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서는 일제하 불교계에서 임시정부에 제공된 후원금, 독립자금에 대한 연구의 심화에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

주제어

만공, 만해, 한용운, 김구, 독립자금, 선학원, 독립발원 기도

I. 서언

근대기 수덕사에 머물면서 선불교의 중흥, 생활화, 대중화에 기여한 고승이 있었으니 그는 만공(滿空; 1871~1946)이었다. 그는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인 경허(鏡虛)의 법제자로 경허의 행적과 자료를 수집하여 경허 사상의 기반을 정비하였고, 수덕사를 기반으로 수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피폐된 수행 전통을 비판하면서 선불교의 자각 및 청정승풍을 진작시킨 선학원(禪學院)의 창건과 운영에도 헌신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행보는 근대기 불교에서 주목받을 역사이었다. 선학원은 3·1운동의 영향으로 설립되었기에 선학원에 연고가 있는 승려들의 행보는 3·1정신 계승,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덕숭총림 수덕사와 만공의 법손인 경허·만공선양회는 만공의 이와 같은 행적 및 성격의 조명에 그치지 않고 만공의 자주정신, 독립운동에 대한 행적을 밝히려는 행보를 가고 있다. 이는 2015년부터 만공을 독립유공자로 만들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그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구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관련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고,¹⁾ 일부 성과물은 학술지에 게재되었다.²⁾ 필자도 수덕사의 그 행보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공은 현재까지도 독립운동가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국가보훈처와 수덕사가 주고받은 공문에 의하면 만공의 독립운동을 바라보는 입장, 견해, 판단은 매우 이질적이다. 수덕사는 만공의 1937년 총독부에서의 ‘할(喝)’사건, 1941년 유교법회, 1943~1945년 간월암에서의 독립발원 기도, 만해에게 전달한 독립자금 등은 정신적인 독립운동의 범

1) 2015년 9월 20일에는 ‘일제 강점기 만공선사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2016년 9월 8일에는 ‘일제하 만공선사 항일 사자후’라는 주제로 수덕사 황하정루에서 열렸다.

2) 김광식, 「만공의 정신사와 총독부에서의 ‘禪機 發露’(1937) 사건」, 『향토서울』 91호, 서울역사편찬원, 2015.

김광식, 「滿空의 민족운동과 遺敎法會·간월암 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활동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 판단, 옥고 3개월 이상의 공적이 확인되는 대상에 의거한 심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 근거하여 만공의 활동은 종교의 영역, 적극적인 독립운동으로 볼 수 없음,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서 미확인(독립자금 전달, 간월암 기도 등), 조계종의 일체 협력(조계종 중무고문, 마곡사 주지) 등의 편협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독립운동가 포상을 미루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필자는 본 고찰에서 만공(滿空)-만해(萬海)-김구(金九)로 이어지는 독립자금의 전달, 독립운동 연결의 루트, 민족불교와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의 글에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논지 입증에 한계가 많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권을 상실하고, 가혹한 일제의 식민통치가 구현되던 그 시절에 독립자금의 전달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 있기는 어렵다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객관성, 근거성이라는 입장에서 나온 비판적인 관점에서만 역사를 이해한다면 역사의 내면에 있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의 자체를 배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관련 자료는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하겠지만, 진실에 대한 개연성을 역사적 맥락하에서의 상상력으로 보충하면서 역사를 만들고, 보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논고를 집필하였다.

만공의 독립운동에 대한 정립, 그리고 일제하 불교계가 독립운동에 제공한 수 많은 자금에 대한 사실을 조명하는 연구에 더욱 나서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글을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인 탐구로 보완하겠거니와 제방의 눈 밝은 분들의 고언과 비판을 기다린다.

II. 만공이 만해에게 독립자금 전달

만공(속명, 송도암)과 만해 한용운은 매우 친근하였다. 만공(1871년생)이 만해(1879년생)보다 8살의 연상이었지만 전하고 있는 여러 자료를 보면 두 고승은 많은 인연을 갖고 있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만공은 독립자금을 만해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필자는 만공이 만해에게 전달한 독립자금은 우연적, 일시적이지는 않았다고 본다.

만공이 만해에게 독립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최근 수덕사 비구니 2인이 그를 증언하였다. 그 첫 번째 증언은 수덕사의 비구니인 수범(견성암 선원장, 2017년 75세)³⁾ 증언이다. 1940년대 초반 상황을 전하는 증언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담(진성) 나이 15, 16세때 만공큰스님을 모시고 상경했던 당시의 말씀을 원담 방장스님으로부터 들은지 20년이 넘은 것 같다. 원담 방장스님은 수현(90세) 사형님과 세속 나이가 같다. 원담 방장스님은 2008년에 입적하셨다.

방장스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더듬어 회미하게나마 기억나는 것을 적어 보면 대강 이러했다. 1940년대 초반 어느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공큰스님을 모시고 다녀왔던 원담(진성)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알고 보니께 노스님(만공)이 숨은 독립지사더라고 수덕사를 떠날 때 노스님이 나한테 보따리를 하나 주시면서 잘 들고 따라오라고 하셨거든.”

청년이라기엔 아직 어렸던 소년승 원담은 경성역에서 기차를 내려 선학원까지 가는 동안 그 보따리를 들고 가다가 머리에 이기도 하고 휘적휘적 저만치 앞서 가는 노스님을 따라가느라 땀을 뻘뻘 흘렸다고 한다.

서울을 갈 때 선복(만공스님 시자) 비구니(궁중 나인 출신)스님이 이런 말을 했었다.

“큰스님 잘 모시고 다녀와요.” 후일 나는 선복노스님께서 원담스님에게 ‘잘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신 말 속에는 반듯이 무사히 다녀와야 하는 나들이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3) 수범의 법납은 60세이다. 즉 그는 15세인 1958년에 출가하였는데, 만공의 시자인 원담스님과 친근했다.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경성(京城)으로 갔던 원담스님은 선학원에서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큰방 쪽으로 갔는데, 문 밖으로 스님들이 나누는 말씀이 흘러 나와 듣게 되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저녁에 삼청공원 그 집에서 만나 나누시다”라는 것이었다. 저녁식사를 하고 나자 원담스님은 피곤하여 잠에 골아 떨어져 달게 한숨 자고 눈을 떠보니 만공큰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대뜸 낮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스님들이 삼청공원 그 집에 모여 있을 것 같았다. 삼청동 그 집은 기와가 아니라 초가집이었고, 언젠가 만공큰스님을 모시고 한번 가 본 집이기도 하였다. 원담스님은 기억을 더듬어 삼청공원을 걸어가며 문제의 초가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원담스님의 예상은 맞았다. 그 집에 만해스님과 만공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여러분 동석해 있었다. 그리고 이 날도 만해스님은 만공스님께서 건어 온 것에 대한 치하를 하셨다고 한다. 문밖에 서서 그것을 들었던 원담스님은 후일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만공스님이 만해스님에게 전해 준 독립자금이 든 보따리를 수덕사에서 경성까지 가지고 간 사람은 나여. 나도 알고 보면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큰일을 한 사람이랑께”

원담스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몰랐지만 선복노스님은 만공큰스님께서 경성 나들이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가져가는 중이니까 특별히 “잘 모시고 다녀오라”는 말을 했던 것이라는 심증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원담스님이 나에게 털어 놓으므로써 공유한 비밀은 나에게도 평생 동안 벗어 놓지 못하고 안고 다닌 짐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다.⁴⁾

위의 증언은 만공이 1940년대 초반 만해를 서울에서 만나 독립자금을 비밀리에 전달하였음을 단적으로 전한다.

두 번째 증언은 만공을 입적하기 직전까지 시봉한 원담(1926~2008)으

4) 『만공의 항일정신』(자료집), 수덕사, 2015, pp.20-21, 「새로운 증언 ②」.

로부터 들은 정황을 고백한 수연(수덕사 견성암, 2017년 90세)의 내용이 있다. 그 전문을 제시한다.

만공큰스님께서 천일 기도를 시작한 것은 1942년 8월 초순께였다. 장소는 간월도에 위치해 있는 간월암이었다. 나는 그때 견성암에 있다가 주로 만공큰스님을 비롯해 천일 기도 동참 스님들의 차 시중을 들어줄 시봉으로 차출이 되었다. 원담스님은 만공큰스님의 곁에 수족처럼 붙어서 시봉을 했었다. 비구니와 비구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시봉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원담스님과 나는 눈만 뜨면 마주쳤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한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원담스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노스님이 실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야”

그 말을 할 때, 행여 누가 들을세라 주저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했던 기억이 새롭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킨 다음 물었다.

“어째서요?”

“노스님이 한양에 가실 때 내가 모시고 다녔잖아.”

“그런데요?”

“총독부 회의에 참석했던 그 날도 그랬고, 선학원 고승대회에 참석했을 때도 그랬는데, 밤에는 삼청공원에 있던 은밀한 장소로 가서 한용운스님을 만났어요. 두 분이 나눈 말을 자세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 스님이 한용운 스님에게 독립자금이 든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면 절대 안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벌렁거리려 한 동안 진정할 수 없었다. 만공큰스님과 한용운 스님은 아주 친한 도반이었고, 그런 터에 만공 큰스님이 독립자금을 은밀히 모으고 있던 한용운 스님을 외면할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만공 큰스님이 독립운동가라는데 동감한다. 원담스님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 또한 그럴 것이라 짐작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 독립은 목마르게 원해도 언제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 솔직히 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공 큰스님께서는 독립의 날이 반드시 와야만 하고, 오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큰스님의 서원 때문에 간월암 천일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스님께서서는 일본 순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을 골라 천일 기도를 입재하셨고,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평화 기원을 표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이었음으로 동참했던 나로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천일이면 말이 쉽지 3년이다. 3년을 하루 같이 간절하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우리 절 근처에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도 우리 고장의 자랑인 유관순 열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법문을 하실 때, 나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경청했었다

큰스님이 밭끝에서 머리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며 기도를 드리니 동참재자 누구도 건성으로 임할 수가 없었다. 목탁과 요령소리, 염불과 축원과 법문이 혼연일체가 되어 법당 안을 가득 채웠다가 법당 밖으로 새어나와 우주공간으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다. 돌이켜보니 내 평생에 이때가 신심이 제일 강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만공 큰스님 덕분이다. 모든 동참재자들이 그랬는데 어찌 시방삼세 제불님들의 은총이 답지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가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 된 것은 천일 기도를 회향한 3일 후였다. 해방의 그날, 동참재자들은 절 마당에 태극기를 들고 모여 대한 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나는 이때 우리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시어 독립된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지금도 그날, 환하게 웃으시던 만공 큰스님과 시봉이었던 원담 스님의 모습이 눈을 감은 망막 안에 선하게 어린다.

눈을 뜨자 두 분 다 아득한 저승으로 멀어져 가니, 뒤 따라가서 뵈올 날이 멀지 않았지만, 그림고 그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2015. 9. 1

수연스님(修蓮, 견성암) 黃수연⁵⁾

5) 위의 『만공의 항일정신』(자료집), pp.18-19, 「새로운 증언 ①」. 만공과, 원담,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滿空法語』(능인선원, 1982) 화보에 나온다.

이 관련 내용은 <동아일보> 2015.9.15, A20쪽, 「만공스님은 독립운동가 ... 한용운에 독립자금 전달했다」, <중앙일보> 2015.9.18, 「만공, 밤중에 만해에게 독립자금

이상과 같은 수연의 증언은 위에서 먼저 제시한 수범의 증언을 더욱 보강한다. 즉 만공이 1940년대 초반 독립자금을 준비하여 서울의 선학원에 간 것, 삼청동의 초가에서 만공이 만해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요컨대 만공은 총독부 본사 주지회의(1937.2.26~27) 때, 선학원에서 열린 고승대회에 참석했을 때(1941.3.4~13)에 독립자금을 만해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한 원담(1926~2008)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던 것이다.

이렇듯이 목격자인 원담으로부터 들은 비구니가 두 명이였다. 그들이 청취한 증언의 초점은 만공이 만해에게 ‘독립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독립자금을 전달한 시점, 장소, 정황 등이 아주 구체성을 띠고 있기에 이는 사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오자 덕송총림의 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설정(1941~)도⁶⁾ 춘성에게서 들은 자금 전달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춘성은 만해의 상좌이었지만 만공을 존경하여, 수덕사 정혜사 선원에 잦은 출입을 하면서 수행을 하였다.⁷⁾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의 증언을 제시한다.

1959년도 춘성스님께서 만공스님 탄신 추모일(음. 3.07)에 “만공스님의 숨은 밀행이 아니었으면 우리 스님(만해스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옥바라지를 했겠어. 1937년 일갈(一喝)로 남차랑 총독을 호통친 후 전국에서 승속을 막론하고 스님(만공)을 더욱 흠모하게 되었었지. 나는 옥바라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스님(만해) 면회를 다니면서 법사(法師)이신 큰스님(만공)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중략)...”

나는 이와 같은 말을 1959년 음 3월 초에 만공대선사 탄신 추모 다례일에 그 당시 수덕사 주지 벽초스님(1985년 입적) 춘성스님(만해 한용운스

전달」에도 보도되었다.

6) 설정스님·박원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 2016.

7) 김광식, 『춘성-무예도인·만해제자』, 중도, 2010. 춘성은 만공의 懺悔弟子이었다.

님 상좌 1977년 입적) 금봉스님(수덕사 조실) 금오스님(구례 화엄사 주지 1967년 입적) 강고봉스님(정혜사 입승 1960년대 입적) 원담스님(정혜사 선원장 2008년 입적) 보산스님(수덕사 도감 1969년 입적) 수일스님(수덕사 원주 1980년 입적) 등 대중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춘성(만해 한용운스님 상좌)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공선사께서 일제 때 돈이 좀 생기면 은밀히 선학원으로 가서 만해 스님을 오시라고 해서 주시곤 하였는데 그것은 항일 독립자금이었다. 대단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스님(만해 스님)께서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일선에 나선 것은 만공대선사 같은 분의 숨은 밀행이 아니었으면 어렵도 없는 일이지.”

이와 같은 취지로 하시던 말씀이 어렵듯이 생각나서 지난 2015년 9월 20일 일제 강점기의 만공선사 위상 학술세미나 범위 중에 한 말이었는데 수덕사 사무실과 선양회측에서 녹취를 하지 않아 그날 한 말을 다시 서술한 것이며 아울러 만공대선사께서 총독에게 불교진흥책의 부당함을 말하고 총독에게 호통친 것 이외에도 음으로 양으로 조선인의 자존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창씨개명을 못하게 하여 덕숭산 스님들은 어느 누구도 창씨개명에 갖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⁸⁾

이와 같은 설정의 증언은 만해의 상좌인 춘성이 지켜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만공은 돈이 생기기만 하면 밀행으로 만해에게 ‘항일 독립자금’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 만공의 후원, 자금 전달이 있었기에 만해가 항일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필자는 이전 논고에서 만공의 민족정신, 독립정신에 입각한 간월암 기도의 개요, 성격을 살핀 바가 있다.⁹⁾ 그 이후에도 필자는 만공의 독립정신 자료를 찾던 중에 그 당시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다.

만공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발발하고, 식민통치가 가혹해지자 한국의

8) 『제8회 만공대선사 학술대회(주제 ; 日帝下 만공선사 抗日 사자후), 자료집』, 2016, p.9, 「새로운 증언 ①」.

9) 김광식, 「滿空의 민족운동과 遺教法會·간월암 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독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발원하는 천일 기도를 단행하였다. 그는 우선 관측사(논산)를 찾아, 은진미륵석상에게 발원하였다. 그 직후 독립발원을 하는 관음기도를 서해 바다의 간월도에 위치한 간월암에서 은밀하게 시작하였다. 이때 만공은 일제의 죄목 7개조를 제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다.

- 한민족 고유의 미풍양속과 문화의식을 말살한 죄
-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킨 죄
- 한글 사용을 폐쇄시킨 죄
- 왜식이름, 창씨개명을 자행한 죄
- 강제로 징용, 징병을 자행한 죄
- 종교와 신앙생활을 탄압한 죄
- 겨레의 재산을 강탈한 죄¹⁰⁾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던 기도에는 만공 제자(고봉, 적음, 진오, 수연)도 동참하였다. 대중들은 기도를 수행하면서 “일본이 하루 속히 패망하고 조선의 독립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라고 발원하였다.¹¹⁾ 만공은 이와 같은 독립정신을 구현하였기에 만해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껏 수범, 수연, 설정 등 수덕사 승려들의 증언 그리고 만해의 상좌인 춘성의 증언을 통해서 만공이 만해 한용운에게 독립자금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그 무렵 김일엽의 아들 김태신은 최범술, 박광, 김봉을 등의 독립운동가들이 만해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회고가 있다.¹²⁾ 또한 통도사의 김구하는 생전에 그가 상해 임정에 독립자금을 전달한 영수증을 남겼다.¹³⁾ 그런데 그는 만해에게도 자금을 제공하였다.

10) 김대은, 『觀音信仰』, 삼장원, 1978, pp.267-269.

11) 위와 같음.

12) 김태신, 『라홀라 사모곡』 상권, 한길사, 1991, pp.178-179, pp.193-194.

13)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

그 자금의 성격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구하는 상해 임정의 자금 출연 문제로 만해에게 자문을 하였다고 한다.¹⁴⁾ 이를 볼 때에 만해에게는 불교계의 다양한 채널에서 독립자금이 전달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다만 이런 구술 증언을 그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에는 나올 수 없음이 아쉽다. 한밤중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일이 어떻게 기록이 되겠는가? 그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만공 - 만해는 상호 신뢰 속에서, 항일 정신을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의식이 있었기에 그런 독립자금 전달이 있었다고 본다.

III. 만해와 만공의 인연

본장에서는 만공이 만해에게 왜?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독립자금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살핀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공과 만해 사이에 있었던 인연의 매듭을 풀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예전부터 만공과 만해는 왜 가까웠는가를 탐구하여 그의 개요를 가늠해 보았다.¹⁶⁾ 이제는 그 글에 의지하면서 독립자금을 수수하게 된 인연의 배경을 들추어 보고자 한다. 만공과 만해와의 인연의 첫 시작은 1918년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은 1911년부터 임제종운동, 불교 대중화운동, 대중 계몽운동을 하다가 1917년 겨울에는 그의 출신 사찰인 백담사로 복귀하여 오세암에서 동안거 수행을 하였다. 이때 만해는 참선 도중에 깨달았고, 그 경지를 오도송으로 남겼다. 그런데 만해의

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14)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사람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2016, p.73.

15) 통도사의 구하도 만해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졸고, 「만해 한용운과 통도사」, 『정인스님 정년기념논총』, 2017, pp.900-902.

16) 김광식, 「만해와 만공」,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pp.35-50.

오도송은 만공에게 전달되었고, 만공은 그를 회상의 대중들에게 보였다고 한다. 『만공법어』에 전하는 그 내용을 제시한다.

눈속에 도화(雪裏桃花)

- 용운 법사(龍雲法士)

서울에 있는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스님이 오도송(悟道頌)을 지어 와서(作悟道頌而送來) 이르되,

남아가 이르는 곳마다 다 내 고향인데	男兒到處是故鄉
몇 사람이나 객의 수심 가운데 지냈던고!	幾人長在客愁中
한 소리 큰 할에 삼천 세계를 타파하니	一聲喝破三千界
설한에 도화가 조각조각 날으네.	雪裡桃花片片飛

스님이 반문하여 이르되, “나르는 조각은 어느 곳에 떨어졌는고?(飛者落材什麼處)” 하였다. 용운스님이 답하여 이르되, “거북털과 토끼 뿔이 로다(龜毛兎角)” 하였다.

스님이 크게 웃으며 다시 대중에게 이르되, “각기 한마디씩 일러라” 하니, 법회 비구니가 나와서 이르되, “눈이 녹으니 한 조각 땅입니다.” 하거늘, 스님이 이르되, “다만 한 조각 땅을 얻었느니라.” 하였다.

評 ; 도는 재주와 지혜로는 얻을 수 없다¹⁷⁾

위의 기록에 의하면 만해는 오도송을 갖고 만공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위에 나온 “지어와서(作悟道頌而送來)”의 내용만으로는 만해가 직접 왔는지, 혹은 만해 제자가 심부름을 왔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즉 시점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추측하건대 장소는 수덕사이었겠지만, 시점은 알 수 없다. 1919년 3월, 3·1운동 이후에는 그럴 여건이 없었을 것이었기에 우선적으로는 1918년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일부 기록에서

17) 『滿空法語』, 수덕사 능인선원, 1982, pp.134-135.

는 3·1운동으로 일제에 피체되어 수감 생활을 마친 1920년대 초반에 만해 수제자인 김용담이 오도송을 갖고 와서 만공에게 보였다는 구전도 있다.¹⁸⁾

어쨌든 만해는 자신의 오도송에서 애초에 지었던 ‘편편비(片片飛)’라는 문구를 위와 같은 만공의 지적을 받아들여 ‘편편홍(片片紅)’이라고 수정하였다고 한다.¹⁹⁾ 만해가 왜 오도송을 갖고 와서 만공에게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전하는 내용이 없다. 추정하건대 만해는 1910년부터 수덕사에 능인선원을 세워 후학을 지도하였던 만공의 명성이 고양되자 자신의 오도의 경지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20년 전부터 파악하였던 필자는 약간의 의아심을 가졌으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한 자료(문건, 증언)를 얻지 못하였다. 다만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만공의 독립운동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찾던 중에 만공의 가르침을 받은 수행자인 덕산(德山 ; ?~1981)²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만나게 되었다.

鏡虛, 그는 韓民族의 얼이 오랫동안 얼음장 밑으로만 흐르다가 돌연 우뚝소리와 함께 솟구친 民族精神의 극치이다. 鏡虛는 많은 哀話를 남기고 그의 제자 滿空에게 法을 傳한 후 방랑길에 올랐다. 뒷날 滿空은 鏡虛가 개척한 개척지에 禪의 불씨를 심는 일에 一生을 버린 禪師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詩人이며 또한 革命家이기도 한 萬海 韓龍雲은 실은 鏡虛를 밑받침으로 하여 滿空이라는 거대한 바닷물의 한 파도 침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언제나 찬란한 이름 뒤에는 그 이름을 있게 한 泰山이 말 없이 서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되겠

18) <법보신문> 21호(1988.10.18.) p.4, 「근세 한국선사 재조명 ; 송만공 ④ 일화」.

19) 김광식, 『만해 한용운 평전』, 장승, 2007, p.100. 편편비로 쓴, 만해의 친필 오도송의 사진을 수록했다.

20) 위의 『滿空法語』, p.310에는 만공의 受法弟子 명단이 나온다. 德山 宗明도 수법제자로 나오는데, 그는 말년에 화계사 조실로 있었다. 범주사 출신인 그는 1928년 정혜사 선원에서 悅衆 소임을 봤다.

다. 鏡虛와 滿空의 禪의 뿌리가 韓龍雲의 嶺으로 빠져나와 소란을 피운 것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名相의 세계는 無形의 한 호흡에 불과하다.²¹⁾

이렇듯이 덕산은 한용운의 행동은 경허를 밑받침으로, 만공이라는 바닷물의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는 과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요컨대 만해는 경허 - 만공의 선맥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접한 필자는 만공이 제공한 독립자금의 본질, 성격을 단순한 자금 전달이라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전제에서 만공과 만해는 어떤 사이이었고 보아야 하는가?

우선 두 인물을 지근거리에서 지켜 본 고송(古松 ; 1906~2011, 화계사)의 증언이 참고된다. 고송은 1937년 동안거 수행을 능인선원의 입승(立繩)으로, 1946년 하안거·동안거 수행을 능인선원에서 하면서 병법(乘法) 등의 소임을 보았다.²²⁾ 그런데 그는 1930년대 초반 선학원에 거주하면서 <불교> 잡지 발간시에 심부름을 하면서 만해를 지근거리에서 살펴 보았기에²³⁾ 그의 회고는 신뢰가 간다. 고송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여연스님 ; 당시 만공스님과 만해스님은 굉장히 친했다면서요?

고송스님 ; 서로들 호형호제 하였지. 만공스님이 나이가 좀 많아. 만해스님이 형이라고 불렀지.

만해 한용운 스님, 그 이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고 괴짜였어.²⁴⁾

21) 덕산, 『滿空禪師의 無碍行』, <월간 중앙> 6권 10호(1973.10), p.101. 이 글은 덕산이 집적 쓴 글은 아니다. 그 당시 화계사에 머물던 학승인 釋智賢이 받아쓰고 간추린 것이다.

22) 『근대선원 방함록』, 조계종 교육원, 2006, p.408, p.438.

23) 불교신문사, 『한바탕 멧진 꿈이로구나』, 삼양, 1999, p.125.

24) 『선우도량』 6호, 1994, p.421, 「선지식을 찾아서, 팔공산의 늘푸른 소나무 고송스님」.

호형호제 하였던 두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 1918년부터 시작된 인연, 경허 - 만공의 선맥에서 만해가 영향을 받았다는 정보를 갖고 이제는 만공과 만해의 인연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자. 만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19년 3·1운동을 최일선에서 주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여러 기록, 논문 등을 고려하면 만해 그가 3·1운동의 중심부 진영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일을 하게 된 것은 1919년 2월 초부터이었다. 만해는 1908년 일본 유학중에 알게 된 천도교측 실무자인 최린을 만나 민족운동을 하자고 대화하여 합의를 하게 된 것은 1919년 1월 말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준비, 추진하였던 천도교와 기독교는 그들의 연합을 통한 운동의 추진이 관건이었다. 어쨌든 만해는 1919년 2월 중순 무렵에 민족대표 선정을 고민, 착수하였던 것이다. 비밀리에, 통신과 교통이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된 거족적인 민족운동인 3·1운동을 추진한 만해가 불교의 대표까지 인선하는 것은 간단히 않았다. 더욱이 만해는 그런 일을 혼자서 추진하였다. 여기에서 그런 정황을 전하는 기록의 속살을 엿보겠다.

이에 대해서 만해는 불교측 3~4인을 민족대표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전한다.²⁵⁾ 여기에서 만해의 말년 거처인 심우장(尋牛莊 ; 서울 성북동)²⁶⁾을 드나들었던 불교청년이었던 김관호²⁷⁾의 증언 기록을 보자.

3·1독립 선언 인원 구성에 선생의 희망은 불교인을 다수로 하려고 白初月, 宋滿空 두 스님과 密約이 있었으나 너무나 허무하였으니 壬辰 歷史를 회고하고 他教 奮起를 비교하면 불교의 존재는 文字 그대로 無明이었다. 당시 선생의 야심은 불교인을 다수로 하여 壬辰歷史와 같은 제2의 구국운동으로써 불교사회주의를 포부하고 宋滿空 스님과 활동하였으나

25) 고재석, 『한용운과 그의 시대』, 역락, 2010, p.361.

26) 김광식,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 『만해축전 자료집』, 만해축전 추진위원회, 2014.

27) 김광식, 「한용운과 김관호」,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소위 高僧大德이 다수이면서도 모두 무관심하여 겨우 白龍城 1인만의 합의를 얻었을 뿐이니...28)

위와 같은 전언을 참고하면, 만해와 만공은 민족대표 가담, 3·1운동 참여 등을 함께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나온 “백초월, 송만공 두 스님과의 密約”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만공의 고민, 응답을 전하는 구체적인 기록, 증언이 없어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보건대 만해는 1918년 10월 중순에 해인사를 방문하여 특강을 하였다고 하는데,²⁹⁾ 그때 해인사 지방학림의 강사로 백초월이 있었다.³⁰⁾ 아마 그 때에 두 사람은 추후의 민족운동에 대한 언질(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백초월은 1919년 4월에 상경하여 불교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였다.³¹⁾ 그리고 만공과는 1918년 어느 시점에 만해가 수덕사에 와서 오도송을 갖고 대화를 할 때에 장래의 민족운동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추후에 민족운동이 전개될 시에는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정황을 만해에게 전해들은 김관호는 밀약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밀약까지 있었는데 왜? 민족대표에 만공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만해와 3·1운동을 같이 추진한 최린의 재판정에서의 신문 발언이 참고된다.

문 韓龍雲에게는 피고인이 운동의 방법 등을 말하여 2월 20일경에 찬동하게 했고, 白相奎에게는 韓龍雲이 같은 말을 하여 찬동하도록 했다고 진회에 진술했는데 그것은 틀림이 없는가.

28) 김관호, 「심우장 견문기」, 『한용운사상연구』 2집, 한용운사상연구회, 1981, p.283.

29) 최범술, 「만해 한용운 선생」, <신동아> 75호(1970.11) ; 『효당 최범술 문집』 1권, 민족사, 2013, p.404.

30) 최범술, 「三一運動과 海印寺 ②」, <대한불교> 1969.2.23 ; 『효당 최범술 문집』 1권, 민족사, p.393.

31) 김광식, 『백초월』, 민족사, 2014.

답 그 무렵에 韓龍雲이 가끔 내 집에 놀러 왔다가 어떤 말 끝에 독립운동을 일으키자고 나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교측과 합동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도리어 세상의 여론이 어떠하냐고 묻는 정도로 진의는 말하지 않고 지냈었다. 드디어 예수교측과의 합동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우리들 운동의 주지를 말했더니 韓龍雲은 조금도 이의없이 그것에 찬동하고 그 사람이 불교도를 규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이 진척되어 기명할 단계에 이르러 불교도는 너무 진용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韓龍雲에게 그것을 추구하였더니 그 사람은 하여튼 자기와 白相奎만이라도 기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韓龍雲에게는 합동이 확정된 뒤에야 제반의 말을 했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시기는 확정된 날, 곧 24일에서 27일까지의 사이였으므로 지방법원 예심에서 그것을 2월 20일이라고 진술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었다.³²⁾

최린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천도교와 기독교의 3·1운동의 합동이 확정된 후에 불교측의 만해에게 불교측 대표를 기명(記名)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시점이 2월 24~27일이었던 것이다. 이렇듯이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하에서 3일만에 만해는 만공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만해는 민족적 거사에 유교측이 가담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거창까지 내려가서 유림의 대표격인 곽종석을 만나고 24일에는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이후 만해는 3·1운동 중앙 지휘부를 한시도 떠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만공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위의 김관호의 증언처럼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할 제반 여건이 절대 부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백용성은 만해의 거처(유심사, 종로 계동)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포교당(대각사, 종로구 봉익동)에 머물렀다. 그래서 만해는 2월 26일 백용성을 만나 민족대표로 동의를 받고 그의 도장을 인수하여,³³⁾ 2월 27일 최린의 집에 가서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32)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2권(三一運動 II),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高等法院)(國漢文) ; 崔麟 신문조서(제3회)」.

도장을 찍고 백용성의 것도 그가 날인을 하였다.³⁴⁾ 이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만해는 만공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이제부터는 만해가 3·1운동으로 3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의 만공과 만해의 인연을 더듬어 가보자. 만해는 1921년 12월에 출옥 후, 선학원(종로구, 안국동)에 머물렀다. 그런데 선학원은 만공의 주선으로 선풍진작, 민족불교 지향을 위해 1921년 11월에 창건된 사찰이었다. 만공은 선학원의 창건 정신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전국 수좌들의 자주, 자립을 지향하는 조직체인 선우공제회(禪友共濟會)를 1922년 4월에 발족시켰다. 그 취지서에 보면 만공과 만해가 발기인으로 나온다. 출범 직후 만공은 공제회의 수도부 이사(修道部 理事)를 맡았고 운영 자금으로 상당한 토지를 기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만해가 1924년에는 선우공제회의 수도부 이사를 맡았다는 사실이다.³⁵⁾ 즉 만공의 후임을 담당하였다. 어찌되었든 만해는 만공이 만든 선학원에 머물면서 민족운동을 지속하였다. 선학원이 재기를 한 1930년대 초반 만공과 만해는 선학원을 무대로 범문, 특강 등을 하면서 인연을 지속하였다.

한편 만해는 193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 불교계의 유일한 잡지이었던 <불교>의 편집 책임을 맡았다. 그런데 바로 그 때에 만공은 만해에게 『경허집』의 편집을 의뢰하였다.

내가 7년 전 佛敎社에 있을 때에 畏友 滿空이 초고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스승 鏡虛 스님의 遺稿인데 장차 간행하려 하오. 그런데 이 유고는 본래 각처에 흩어져 있던 것을 수집했고 보면 誤脫이 없을 수 없으니, 교열해 주기 바라오.”하고 서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감히 사양할 수 없어 그 초고를 재삼 읽어 보았더니, 그 저술이 시문에 공교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禪文이요 法語이며, 玄談이

33) 『백용성대종사 총서』, 7권(신발굴자료), 대각회, 2016, pp.586-587.

34) 위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白相奎 신문조서」.

35) 김광식,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 『한국 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pp.108-113.

며 妙句였다. …(중략)…

나도 이 책이 속히 세상에 간행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그후 그 문도와 뜻이 있는 이들이 “경허가 지은 글이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직도 만년에 자취를 감추고 살던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하여 기어코 완벽하게 유문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을 간행하자던 논의가 일시 중지되었다. 울(필자 주, 1942년) 봄부터 후학 김영운, 윤등암 등이 이 일을 위해 발분하고 나서서 갑산, 강계 및 만주 등지로 직접 가서 살살이 조사하여 거의 빠짐 없이 수습하였다. 내가 다시 원고를 수정하였으나 연대의 선후는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수집한 대로 편찬하였다.³⁶⁾

1933년 무렵, 만해는 만공의 부탁으로 만공의 법사인 경허의 자료를 분류 편집을 시작하여 1942년 봄까지 그 작업을 하였다. 그러니깐 만공과 만해는 1933년부터는 『경허집』(1943, 중앙선원)이라는 매개체로 더욱더 친근한 만남을 이어 갔다.

만해 그는 1930년대 초반에는 조계사 인근에서 방을 얻어 홀로 지내다가, 1933년에는 결혼을 하여 서울 외곽인 성북동의 초가집에 세를 들어 살았다. 그러다가 성북동 골짜기에 자기 집을 지어 1935년에 입주하였으니 그것이 심우장이었다.³⁷⁾ 그래서 만공은 상경을 하게 되어 시간이 날 때에는 심우장을 찾아갔다. 그래서 만해와 밤새 곡차를 먹으면서 불교, 시국 등의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였다.³⁸⁾

그런데 이런 인연을 이어가던 때인 1937년 2월 26일 총독부에서 열린 31본산 주지회의 석상에서 ‘할’ 사건이³⁹⁾ 일어났다. 그 사건의 내용, 성격

36) 『경허집』, 동국대출판부, 2016, p.351.

37) 김광식,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 『만해축전 자료집』, 만해축전 추진위원회, 2014, pp.615-626.

38) 한영숙, 「아버지 만해의 추억」, 『나라사랑』 2집, 1971, p.91. 만공, 박광 등이 오면 밤새도록 환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朴洸(1882-1970)은 대동청년단 출신으로 임정에 독립자금을 모금하여 보낸 공로로 독립운동가 포상(애족장, 관리번호 2964)을 받았는데, 만해와 생전에 친근한 동지이었다.

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고에서 세부적으로 밝혀 놓았다. 만공은 총독부 청사에서, 총독이 있는 자리에서 ‘할’을 하면서 식민지 불교통치책 및 당시 한국 불교의 부조리를 꿰뚫은 불교의 자주 독립선언의 발언을 하였다. 만공은 평소의 소신으로 일제 불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개진 하겠다는 결심에서 할을 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날 오후, 만공의 소식을 들은 만해는 심우장(성북동)을 떠나 선학원(종로, 안국동)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만공이 선학원으로 돌아오자,⁴⁰⁾ 총독부에서의 소식을 들은 만해를 비롯한 대중들은 선학원에서 만공을 지극한 마음으로 환대하였다.⁴¹⁾ 특히 당시 그 정황은 그때 서울에서 중앙불전을 다녔던 김어수(범어사)의 회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어사 주지 차상명(車相明) 스님이 선학원에 오셨다가에 찾아 뵙고 싶어서 갔던바 만공(滿空)스님이 회의장에서 막 돌아오시는 것을 한용운 선생은 벌써 소문을 듣고 기다리다가 만공스님의 등을 두드리며 “우리 만공이 정말 만공이야.” 하면서 기뻐서 덩실 덩실 춤까지 추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설석우(薛石右) 스님 김적음(金寂音) 스님 김남전(金南泉) 스님 등이 맨발로 트랙에 뛰어내려 만공스님을 둘러싸고 조선은 죽었어도 불교는 살아 있다고 고향을 질렀다.

그리고 생사를 초월한 출세 대장부가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노릇이었다.⁴²⁾

3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고를 참고바란다. 김광식, 「만공의 정신사와 총독부에서의 ‘禪機 發露’(1937) 사건」, 『향토서울』 91호, 2015.

40) 그 시간은 정확하지 않다. 만공은 총독이 주관하는 만찬 자리에 가지 않고 귀가 하였다는 증언을 유의하면 저녁 무렵이 아닐까 한다.

41) 그런데 조지훈은 만해와 만공의 만남에 대하여, 만공이 심우장으로 찾아와서 만났다고 했다. 조지훈, 「放牛閑話 2」, <신동아> 1966년 4월호, p.258.

42) 김어수, 『獨立資金 모아 臨時政府에 送金』, <불교신문> 178호, p.4. 당시 그 주지 회의에 해인사 주지의 대리인로 참석한 최범술은 이에 대해서 만해가 “만공의 거구를 쓰다 들킨다, 그래도 만공이 제법이야! 불알이 생겼어 하며 농조이지만 참된 동지로서 의허(意許)하는 환희를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두 분 사이에는 그

이렇듯이 만해는 만공의 할 사건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였다. 만해는 그 사건을 한국불교사를 빛낸 역사적인 사건, ‘선기의 발로(禪機의 發露)’라고 명명하면서 1937년 12월호인 <불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작년 二月 二十六日에 朝鮮 總督府內에 三十一本山 住持를 會同하고 總督 以下 關係 官憲이 列席한 中에 各 本山 住持에 對하여 個別的으로 朝鮮佛敎 振興策에 對한 要旨를 무렸다. 公州 麻谷寺 住持 宋滿空 和尚이 至하매 和尚이 起立하여 『淸淨本然커니 云何忽生山河大地오』 하고 大聲으로 『喝』을 하였다. 이것은 禪機法鋒의 快漢이 아니면 到底 不可能이다. 『義理』로 解釋할지라도 그 座席 그 時期에 가장 適當한 對答이다. 그러나 나는 그 後에 滿空을 만나서 『鋒』을 써야 마땅할 데에 『喝』을 쓴 것이 法을 誤用한 것이라고 責하였다. 그러나 臨濟의 喝은 喝中 有棒이오 德山의 棒은 棒中 有喝인즉 棒喝互用도 無妨하거니와 棒을 쓸 데에는 喝을 誤用하였다는 말은 凡夫俗子의 容喙할 수 없는 것은 勿論 三世諸佛의 干涉도 斷然不許하는 것이다. 朝鮮佛敎史의 한페이지가 여기에서 빛나는 것을 아는가?⁴³⁾

만해는 사건에 담겨진 뜻을 설명하면서 ‘선기법봉(禪機法鋒)의 쾌한(快漢)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到底 不可能)하다’면서 만공의 선기를 극찬하였다. 그는 한국불교사의 한 페이지가 여기에서 빛이 난다는 말로 단언하면서 ‘할’ 사건을 1937년 불교의 3대 사건의⁴⁴⁾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만해의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만공은 더욱 더 만해의 가치를 인정하였을 것이다. 20년간 이어져 온 인연의 바탕 하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지음자(知音者)’로 대하였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다. 최범술, 「철창철학 - 만해선생으로부터 보고 들은 이야기」, <나라사랑> 2집, 1971, p.85. 이 글의 ‘만해선생과 송만공스님’ 부분에서 소개하였다.

43) <불교> 신9집(1937.12), 불교사, p.6, 「朝鮮佛敎에 對한 過去 一年의 回顧와 新年의 展望」. 당시 만해는 『불교』지의 고문으로 이 글을 썼다.

44) 만해는 추가 2건의 사건으로 總本山 건설운동과 <불교> 속간을 뽑았다.

그래서 필자는 만공이 만해에게 독립자금을 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알아주는, 자신의 자주·독립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인이 만해라고 판단하였던 것에서 나왔던 것이다. 만공 그는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만해는 정신적인 독립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간 일반 대중들과 교섭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바로 이 점을 만공은 파악하고, 만해의 활동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독립자금의 제공은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만공이 만해에게 전한 독립자금은 만공과 만해의 끈끈한 인연, 지음자라는 인식, 만해 독립운동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만해가 입적하자, 만공은 만해가 없는 서울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는 상경치 않았다.⁴⁵⁾

IV. 만해와 김구, 비밀 연락

만해는 심우장에서 말년 10여년을 보내면서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였다. 그리고 청년, 대중들에게 민족 독립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거처인 심우장은 수많은 대중들이 찾아오는 국내, 서울의 민족운동 성지(聖地)이었다. 국외에서 민족운동의 성지가 임시정부라면 국내의 성지는 심우장이었다.⁴⁶⁾

그런데 그 무렵 만해는 중경 임시정부의 책임자인 김구(金九)와 연락을 통하고 있었다. 요컨대 만해와 김구의 독립운동에 대한 비밀 채널이 있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를 방

45) 만해 입적 이후, 만해 아들인 한보국이 수덕사로 만공을 찾아와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때 만공은 조금만 지나면 회소식(해방?)이 올 터인데, 만해는 그것을 못보고 입적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자신과 만해는 '同心一體'라고 발언하였다고 전한다. 『법보신문』 23호(1988.11.1), p.4, 「근세 한국선사 재조명 ; 송만공 完」.

46) 이에 대해서는 줄고, 「만해와 심우장의 정신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증하는 김구의 증언을 전하는 기록이 있다. 김구는 청년 시절, 일본군 장교를 ‘국모보수(國母報讐)’라는 명분으로 처단하고 살인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고종의 특사로 감형되었으나 수감 도중 탈옥을 하여 방랑을 하다가 갑사를 거쳐 마곡사에 들렀다. 그는 22세(1898) 때인, 그곳 마곡사에서 원종이라는 범명을 받고 2년간 승려 생활을 하였다.⁴⁷⁾ 그리고 해방 후, 그는 자신이 출가하였던 마곡사를 찾아 기념식수도 하였다. 요컨대 김구는 불교에 대한 인연이 많았다.⁴⁸⁾

이처럼 김구는 승려 출신의 독립운동가여서 그런지, 만해와도 인연 내용이 전하고 있다. 지금껏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탐구와 해석이 부재하였다. 우선 여기에서 김구의 발언을 전하는 기록을 제시한다. 김구 자신이 만해와의 인연을 회고한 시점은 1945년 8·15 해방이후이다. 8·15해방 이후에 귀국한(1945.11.23) 임정요인을 불교 교단 책임자인 김범린 총무원장 일행이 1946년 1월 경 경교장에서 만났을 당시이다. 불교 교단 간부들이 김구를 만나 대담을 하였는데, 다행히도 그 내용이 불교 기관지인 <신생> 창간호(1946)에 기고되었던 것이다. 그 관련 내용을 전제한다.

드러가는 順序로 앉았기에 맘서로 對話를 責任진 金法麟氏가 主席의 右側에 바루 接近히 안게 되었다. 좀 正面으로 對하게 되었으면 어떨가 하였다.

宣傳部長이 佛教側에서 왔다는 紹介를 하자 一同이 차례로 幄手를 하고 着席하여서 座談으로 드러가게 되었다.

金九主席 談 佛教 여러분을 한번 만나려고 하였던 次 잘 오셨습니다.

金法麟氏 에 迅速히 와서 뵈려구 하였습니다만 일로 만연해 오셨고 하루 바빠 政界에서 기다리던 다음이라 必然 말 할 수 없이 奔走하고 忽忽하실듯 하야 바쁜 政事를 보신 뒤에 間機를 타서 뵈이려구 기달렸던

47) 한시준, 『김구』, 독립기념관, 2015, pp.35-36. 윤병석 직해, 『백범일지-직해 김구 자서전』, 집문당, 1995, pp.112-116.

48) 한상길, 「백범 김구와 불교」, 『대각사상』 29집, 2018.

터입니다. 그런데 敎正 朴漢永先生은 年老하시고 在郷하셔서 不肖하나
마 代身 佛敎를 代表해 왔습니다.

問：佛敎會期가 近問 없으십니까.

答：예 있습니다.

問：年中行事로 모이는 會合인가요

答：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우리 佛敎側 저들은 今番 臨時政
府 여러 諸位가 오심에 對하여 다시 己未를 回想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己未를 생각할 때 己未 後 二十七年間을 우리 政府라 하고 依然 그
命脈을 이어 계승해 왔고 피로써 싸워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臨時政
府 여러분 제위를 대하는 感謝의 하나이고 둘째는 海外에서 光復의 曙
光에 이르기까지 聯合諸國과 손을 잡아 이 光復의 날을 얻기에까지 피
로써 貢獻하여 왔다는 것이 앓은 저들도 잊지 못하는 感謝입니다. 그러
므로 해서 健康한 몸으로 國內 모든 문제와 일에 힘있는 指導를 해주시
고 우리는 힘껏 建國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未安한 것은 國內
事는 잘 모르시겠지만 光復 후에 너무 위대한 指導者를 접하지 못해 統
一되지 못한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도자 및 高所를 求하는 의미로
보아 政治的 刺戟에서 온 求心の 旅露이라면 求하던바 諸位가 還國하
였으니 無言中다 - 灰地로 도라가 다시 좋은 機運이 떠리라고 생각합니
다만 이번에 韓龍雲先生이 계셨던들 얼마나 여러 선생을 마지 하는데
반겨 하시겠습니까. 光復의 날에 또 이 還都하신 우리 政府를 마지하는
날에 얼마나 반가워 하시겠습니까. 感慨亦然 禁할 수 없습니다.⁴⁹⁾

이렇게 김법린은 김구를 만나 임시정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3·1운
동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한용운의 부재가 안타깝다고 고백하였다. 이런
김법린의 말에 김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主席 談 金先生이 上海왔을 때 우리가 만난 것을 잘 記憶하실 터이지요.
그리고 弱小民族大會에 간 이야기도 上海 있으면서 다 - 들고 있었소이
다. 그리고 洪原事件에 國內에서는 대단히 騷亂하였던 모양인데 3년이

49) 유엽, 「臨時政府 要路 諸公의 會見記」, <신생> 창간호, 1946, pp.24-25.

나 애를 많이 썼소. 국내 여러분이 그 壓政 앞에 큰 苦生을 많이 하셨소. 그리고 韓先生 말씀을 하니 말이지 墓所를 무려 보라고 傳囑하고 있는 申입니다. 그런데 韓先生 前에 年前 密使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內容은 무르신 말에 答도 하길 覓 進言할 말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아무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 內容이라 하면 罪 日月을 멀리하고 辱의 政率下에서 骸骨을 더럽히지 마시고 自由天地인 重慶으로 와주시라고 進言하였더니 密使는 반드시 傳했을 터인데 終始 消息이 없기로 事情이 계신줄 알았더니 究竟 別世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 韓先生은 우리 海外의 同胞에게 하늘이 놀란만한 말씀을 전하고 가신 어른이신데 우리는 只今도 새롭게 記憶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옮기면 ○○무관학교에 오셨다가 우리 武官學校 守衛들에게 彈丸 五發을 마즈시고 넘어져서는 이 彈丸이 나를 日本 密偵으로 알고 쏜 朝鮮軍人의 彈丸이라니 나는 이러한 獨立勇士의 굳굳한 守衛에 五個의 彈丸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죽어도 遺恨이 없다고 피투성이로 병원에 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알뜰한 아니 거룩한 愛國者의 말입니까. 墓所를 다음날 참배할 때 案内 좀 해주십시오.

金院長 예 日程을 알려 주십시오

金九主席 談 나의 私談이나 합니다.

내가 佛家 여러분들을 보면 日常 回顧 憧憧함을 禁하지 못합니다.

나도 얼마間 佛敎에서 중노릇을 했습니다. (중략) 깊은 教義中에서도 禪思想의 一面은 日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니 불교가 都市化 民衆化 大衆化하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중략) 朝鮮佛敎도 民衆化 할 수 있나요?

金院長 예 있습니다.

全佛敎運動이 古風을 지키는 叢林道場이 있는 一方 大衆化 都市化에 힘쓰고 着着 進行됩니다.⁵⁰⁾

위의 내용에서 중요한 측면을 피력하겠다. 우선 첫 번째 김구는 김법린의 독립운동 행적(상해 망명, 벨기에 피압박민족대회,⁵¹⁾ 조선어학회 사

50) 위의 자료, p.25.

건 등)에 대해서⁵²⁾ 파악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김구와 만해는 접촉, 연락을 하였다는 점이다. 김구는 이에 대하여 만해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고, 당신은 그에 대한 답변을 밀사(密使)를 통하여 만해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만해와 김구 사이에는 비밀 채널이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김구는 만해에게 일제의 압정을 받는 국내에서의 고생을 하지 말고 임정이 있는 자유의 무대인 중국 중경으로의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임정이 중경으로 간 시점이 1940년 9월이었으니, 그 직후의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만해는 왜? 중경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 점이 본 장의 초점이거나와 만해의 노령, 병환 등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해는 자신의 독립운동론을 소신껏 지키려하였기에 국내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필자는 본다. 그는 국내에서, 대중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일제에 항쟁하는 정신적인 독립운동을 30년간 관철하였다.⁵³⁾ 이에 연관된 내용을 하나씩 풀어 놓겠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그간 연구자들도 주목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구가 만해의 언행으로 높이 평가한 신흥무관학교에서의 저격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만해가 1912년 가을 만주일대를 시찰하고 귀국 도중에 밀정이라는 오인을 받아 무관학교 학생들에게 저격을 받았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이다. 만해는 이 사건을 일제하 잡지에서 회고하였다.⁵⁴⁾ 그래서 만해는 평생을 체두중에 시달렸다. 그런데 왜 만해는 김구의 망명 초청을 거절하였는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증언 기록을 제시한다.

그 전후 사정을 전한 당사자는 만해에게 감화를 받았던 불교청년들이

51) 김광식, 「김법린과 피압박민족대회」, 『민족불교운동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2.

52) 강미자, 「김법린의 민족운동과 대중불교운동」, 『대각사상』 14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

53) 김광식, 「한용운의 만주행과 정신적인 독립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54) 한용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별건곤> 8호, 1927.

1930년에 만든 항일적인 비밀결사 단체인 만당(卍黨)의 당원이었던⁵⁵⁾ 이 이용조이다. 그 기고문은 해방공간의 <불교>지에 게재된 글, 「만해대선사 묘소를 참배하고」이다. 이 글을 저술한 이용조는 만해를 존경하였으며, 1930년대 중반부터 해방 당시까지 중국 길림에서 의사로 활동하였기에⁵⁶⁾ 그의 설명은 신뢰성이 높다.

지금부터 三十여년전 三一運動 以前에 先生은 독립운동 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간도를 거쳐서 길림성 유하현 고산자에 있는 獨立軍 養成所인 新興武官學校를 가셨다. 각지에서 독립운동 영수를 만나 독립운동 기본 방침에 대하여 선생의 포부를 설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홍학교에서도 하룻밤을 쉬시며 그곳 선생들과 밤늦도록 토론이 있었다. 만해 선생의 주장은 大要는 다음과 같다. 日淸戰爭, 日露戰爭에 이기고 名實 공히 동양의 패자가 된 일본을 상대로 滿洲에서 이 같이 소수 청년들을 훈련하여 무력으로 왜적과 싸워 독립을 戰取하겠다는 것은 그 기개만은 壯快하나 此 所謂 螳螂拒轍格으로 實效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大多數인 국내 동포의 群衆 속에 들어가서 그네들과 苦樂을 같이 하면서 精神的으로 獨立思想을 고취하여 全民族的 反日戰爭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선생의 주장에 대하여 在滿 지도층의 주장은 혹독한 일제 압박하에 국내운동을 불가능한 것이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국외로 나와서 실력을 양성하여 成不問武力鬪爭으로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다.

지도층은 선생이 국내의 유명한 사상가인 것도 알았고 선생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이 같은 論戰을 밖에서 들은 血氣方壯한 학생들은 선생을 왜놈의 밀정으로 誤認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 自治會에서 선생을 清算하기로 결의하고 翌日 선생이 학교를 떠나 통화현

55) 김광식,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p.268.

56) 夢庭生, 「北國行」(2회), <불교> 103-104호, 1933.
<불교시보> 63호(1940.10), p.4, 「滿洲國 吉林醫院長 이용조씨 환영회」.
이용조, 「卍海先生の 回憶」, <불교> 4호(1970.9), pp.26-29.

성으로 가는 뒤를 쫓게 되었다. 집행대원은 만일을 염려하여 삼소대로 나눠서 가게 되었는데 학교서 통화가는 데는 중간에 ‘굴나스’ 嶺이라고 상당히 높은 산재가 있다. 선생이 그 재를 넘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김동석, 김영윤 두 사람이 선발대원으로 무심코 가는 선생의 뒤를 향하여 권총을 쏘았다. 선생은 명중되어 깊은 골짜기로 떨어져 굴러가는데 다시 쏘려고 굴러 떨어지는 선생을 향하여 見樣을 하고 막 쏘려는데 때마침 이상하게도 산 위에서 벌목하는 도끼소리가 쿵쿵 들려왔다. 학생들은 뒤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하여 다시 쏘지 못하고 시체검증도 처치도 않고 의례히 죽었거니 하고 돌아서 왔던 것이다.⁵⁷⁾

위의 글에 만해의 피격 사건에 대한 전후사정이 잘 나왔다. 당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이 만해를 제거하기로 한 연유가 구체적으로 나온다. 즉 만해는 무관학교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에게 만주에서 준비하는 무력투쟁에 담긴 기개는 장하나, 동양의 패자가 된 강대국 일본을 상대로 무력투쟁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 대신 만해는 그런 무력투쟁보다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대다수인 국내 동포의 군중(群衆) 속에 들어가서 그네들과 고락(苦樂)을 같이 하면서 정신적(精神的)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전민족적 반일(反日) 전쟁을 전개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만해의 주장은 국내의 군중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군중들의 정신에 독립사상을 고취시켜, 전민족적 반일전쟁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만해의 이런 발언을 들은 무관학교 학생들은 만해가 그렇게 당당히 논리를 피력하는 것에서 밀정으로 단정하고 처단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만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학생들의 그 행동을 애국으로 높이 평가하였거니와, 이런 만해의 어록이 국외에 알려졌다.

어쨌든, 만해는 국내의 군중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면서 정신적인 독립운동의 노선을 곳곳이 전개하였다. 3·1운동 당시 만해가 민족대표로서

57) <불교> 신년호, 1947, pp.25-26.

지도부에서 활약한 것도 이런 입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만해는 일제에 피체되어 고등법원의 신문(1919.8.27)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배포한 이유를 답할 때에 “독립선언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독립국이 된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⁵⁸⁾ 대중이 활동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대승 불교 및 민족불교를 실천하는 것이 만해의 지론이었다.⁵⁹⁾ 때문에 만공이 제공한 독립자금은 바로 이와 같은 만해의 노선에 대한 열렬한 지원, 후원, 동의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시정부(김구)와 만해 사이에 오고간 밀사, 비밀 연락책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다. 임정 주석인 김구가 고백하였으니, 그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런 사실을 입증한 문건 기록을 찾다가 임정 36호라는 김형극의 증언 보도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그가 증언한 내용 중에서 만해와의 연관 내용을 간추리겠다.

항일첩보 36호의 유일한 생존자인 金滄極 선생은 이 강연에서 항일첩보 36호의 비화와 관련, …(중략)… 일제의 발악이 극에 달한 1938년 8월 상해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김형극은 경남 사천군 곤명면에 있는 다솔사에서 만해의 회갑연을 맞아 白山(필자주, 안희제)과 자리를 함께 했었다. …(중략)… 그후 김형극이 1944년 2월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 와병중인 만해를 찾아 갔을 때 만해는 年下의 백산이 먼저 간 것을 비통해 하면서 陽36 陰36에 근거한 일제 36년 敗亡의 적중을 다시 강조했다.⁶⁰⁾

많은 死線을 넘으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를 접해 본 김투사는 33인중의

58)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2권(三一運動 II), 「三·一 獨立宣言 關聯者 訊問調書(高等法院)(國漢文) ; 韓龍雲 신문조서」.

59) 김광식, 「한용운의 대승불교·생활선과 구세주의·입니입수」, 『한용운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60) <동아일보> 1975.6.25, 「스케치 ; 음양역학으로 일제 패망을 예언한 한용운선생, 김형극씨가 항일 첩보 36호비화 처음 공개」.

한 사람인 萬海 韓龍雲을 단연 최고로 꼽는다.⁶¹⁾

김씨는 항일 운동에 관련된 일들을 돌이켜 볼 때마다 萬海 韓龍雲 先生의 철저한 處身과 함께 豫言이 되새겨지곤 한다고 했다. 만해는 해방되기 전 해인 44년 양 36년, 음 36년설을 내세워 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고통은 宿命이나 그 뒤에 큰 轉機가 온다고 하였다.⁶²⁾

임시정부의 비밀첩보원이었던 김형극의 증언, 비사에서 주목할 것은 임시정부의 밀명을 받고 그가 만해와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만해를 심우장(서울), 다솔사(경남 사천)에서 만나 일제의 패망에 대한 예언, 임시정부에 상당한 군자금을 제공한 백산 안희제 등을 소재로 대화를 하였다. 김구가 말한 밀사가 김형극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김구와 만해 사이에는 비밀 연락선(채널)이 가동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학계에서는 김형극의 구술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증언을 보면 김형극의 회고를 무작정 배척만은 할 수 없다.

萬海先生을 처음 뵈는 것은 1939년 9월 1일, 경남 사천에 있는 多率寺에서였다. 그 당시 부산서 백산상회라는 상호로써 무역상을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던 백산 안희제 선생의 소개로 필자는 처음 선생의 濼容에 접한 이래로 기회만 있으면 이를 놓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그를 찾았다. …(중략)…

이른바 ‘임정 36호’조의 여러 동지들에게도 그들의 좌절과 절망을 비밀리에 달래주고 고무해 주고자 애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한 것을 느낀다.

솔직히 말하면 만해선생과의 연락은 필자가 맡았는데 선생이 나의 조부

61) <동아일보> 1975.8.16, 「인터뷰 ; 임정 첩보 36호의 유일한 생존자 김형극씨, 독립투상 후손의 가난은 가슴아파」.

62) <동아일보> 1977.8.1, 「인터뷰 ; 상해임정 항일첩보원 김형극씨, 독립유공자를 재정리해야」.

(金鐸)와 절친했던 경허선사의 수제자였었고, 흥범도장군도 나의 조부와 동지 간이었다는 인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왜정말기 아마도 43년 9월로 기억되는데 필자가 성북동 尋牛莊으로 선생을 拜訪하여 흥장군과 백산 두 거성의 부음을 전했다니 선생은 한창동안 放聲痛哭 형을 하시다가 「今年永別奇男子 何處更逢大丈夫」라고 한 詩 一數를 지어준 것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⁶³⁾

위와 같이 김형극의 회고는 아주 구체적이다. 이런 회고에 거 것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필자는 본다. 요컨대 필자는 상해 임정과 만해의 비밀연락은 김형극이 담당하였을 것이다.

한편 만해는 1923년 2월에 이상재, 오세창 등과 함께 임정의 계승, 옹호를 지지한 문건을 만들어 임정과 연관이 많은 상해 교민단에 성명서(敬告 海外各單體)를 발송하였다.⁶⁴⁾ 이는 만해도 임정을 의식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필자는 김형극이 전한 내용 즉 만해는 해방은 곧 온다,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였다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만해의 상좌인 춘성이 전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춘성의 발언을 전한 설정(덕숭총림 방장)에 의하면⁶⁵⁾ 만해는 항상 광복은 필연적으로 온다, 광복 후를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의 수난·환란이 온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만공이 제공한 독립자금이 임시정부에까지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다.⁶⁶⁾ 그럴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야 함

63) 김형극, 「만해 한용운선생의 추억 - 3.1절이면 새로와지는 경세의 편모」, <동아일보> 1976.3.1.

6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의 항일운동 자료, 일본외무성』,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上海假政府 4(上海情報)」(1923.2.15).

65) 설정은 2015년 9월 20일 수덕사에서 열린 만공세미나 행사장에서 법어를 하면서 춘성의 발언을 대중들에게 전달하였다.

66) 백산상회 계열의 안희제, 최준은 독립 자금을 임정 김구에게 전달했다. 이동언, 『안희제』, 독립기념관, 2010, p.166. 해방직후 최준을 김구에게 안내한 인물이 김형극이었다.

을 강조한다. 그런데 최근 만공의 문손인 웅산은 만공이 제공한 재원이 임정으로 보내졌다고 주장하였다.⁶⁷⁾ 여러 정황상 만해와 김구 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루트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김구는 김법린을 비롯한 불교 교단 간부들과 대담을 할 때에 만해 묘소의 위치에 대하여 물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대담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1946년 3월 10일에 망우리에 있는 만해 묘소를 참배했다.⁶⁸⁾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김구는 해방된 다음 해인 조계사에서 열린 (1946.6.7) 만해 기제사에 참석하여,⁶⁹⁾ 만해의 민족정신을 추모하였던 것이다.

불교와 인연이 많은 김구는 1946년 4월 23일, 그가 출가했던 마곡사를 찾아 감회에 젖고 기념 촬영을 하고,⁷⁰⁾ 하룻밤을 지냈다. 그리고 4월 26일 백범은 윤봉길의사의 생가(예산군, 덕산면)를 들렀다. 윤봉길 고택에

67) 웅산, 『만공』,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2017, p.305. 여기에서 웅산(전 수덕사 주지, 경허·만공선양회 회장)은 만해가 만공에게 “이 돈은 상해로 보내져서 독립자금으로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이 증언은 수연스님(수덕사 견성암)의 구술에는 없었는데, 추가된 것이다. 이 사정을 필자가 웅산스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웅산스님은 그 내용은 김일엽의 아들인 일당스님에게 들은 것이라고 하였다. 1990년대에 웅산과 일당은 함께 일본을 갔는데, 그때에 들은 것이라고 하였다. 일당의 그 발언은 원담(만공의 손상좌, 만공 상경시 시봉)에게서 들은 것으로 웅산은 판단하였다.[2019년 6월 8일, 덕산(충남 예산) 음식점(맛동산)에서].

68) <자유신문> 1946.3.18, 「嚴恒燮, 李東寧先生을 追慕하며(下) - 六週忌를 맞고서」.

69) <동아일보> 1946.6.9, 「故韓龍雲氏 法要 太古寺에서 執行」.

70) 마곡사와 김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동아일보> 1946.4.23, 「金九氏 공주시찰」.

<불교공보> 2호(1949.7.30)에서는 김구의 서거 특집을 다양하게 다루었다. 그는 「사설 ; 哭 白凡先生」,

「嗚呼! 民族의 巨星 白凡金九先生 萬古恨 품은채 兇彈에 急逝」, 「先生の 四九齋」, 「麻谷寺 圓宗大師로 佛緣 깊은 金九先生」 등이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마곡사를 다시 찾은 감회를 “해방 후 마곡사를 찾았을 때, 마곡사 승려대표가 공주까지 마중 나왔고, 정당·사회단체 대표로 마곡사까지 나를 따르는 이가 350여명에 이르렀다. …(중략)… 마곡사 동구에는 남녀 승려가 도열하여 지성으로 나를 환영하니, 옛날에 이 절에 있던 한 중이 일국의 주석이 되어서 온다고 생각함이었다.”고 썼다.

서 하룻밤을 지낸 그는 윤봉길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4월 27일 고택 인근에서 의거 1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군중 2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수덕사 승려도 동참하였다. 김구는 그날 오후 상경하였는데, 급한 정치적 사정으로 인근에 있는 수덕사의 만공은 친견치 못하였다.⁷¹⁾ 그래서 백범은 그를 죄송스럽게 여겼으며, 이를 파악한 수덕사 승려들이 만공에게 그 사정을 전달했다는 구전이 있다.⁷²⁾ 그러나 만공은 1946년 10월 20일 입적하였다. 그 후 1948년 5월 김구는 휴식을 위해 마곡사행을 기획하였으나, 긴박한 정치적 사정으로 이행하지는 못하였다.⁷³⁾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서거하였다. 그러자 전국주지회의에서는 김구의 사집구제 거행을 결의하였고, 마곡사에서는 49재를 올리고 김구 명복을 빌었다. 마곡사에는 백범당이 건립되었고, 김구가 심은 향나무를 그 옆에 이식하였다.

V. 결어

본 고찰에서 살핀 만공·만해·김구의 독립운동 루트에 대한 개요와 성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는말에 대하고자 한다.

첫째, 만공은 만해에게 항일 독립자금을 전달하였다. 그 시점은 1930년대 중반부터 만해가 입적하였던 1944년까지 지속되었다고 이해된다. 1930년대 중반부터라고 파악한 것은 그럴 가능성에서 추론하였다. 1940년부터는 자금 전달을 지켜본 당사자인 만공의 손상자인 원담은 1926년생인데 그는 10세 때인 1933년에 수덕사로 출가하여 만공을 시봉하였기 때문이다.⁷⁴⁾ 즉 원담은 1930년대 중반부터 자금 전달을 지켜보았던 것에서

71) 『백범의 길』, 아르테, 2018, pp.72-73.

72) <법보신문> 23호(1988.11.1) p.4, 「근세 한국선사 재조명 ; 송만공 完. 그때 만공은 백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탄식을 하였다고 한다.

73) 『백범의 길』, 아르테, 2018, p.50.

74) 박원자, 『나의 행자시절』, 다할미디어, 2001, pp.208-212에서는 12살에 입산하였다고 나온다. 출가 시점은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다.

둘째, 만공이 만해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은 우연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만공과 만해간의 오랫동안의 절친성, 인연성, 신뢰성, 민족의식 공유 등의 역사에서 나왔다. 그 역사는 1918년에 지은 만해의 오도송에 대한 자문,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추천의 고민, 1922년부터 1930년 무렵까지 선학원에서의 인연(공동 활동 등), 『경허집』 편집 부탁(1933), 총독부의 선기발로 사건(1937)에 대한 평가 등에서 나온 지음자(知音者)로 말할 수 있는 상호성에서 나왔다.

셋째, 만해와 김구 간에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비밀 채널이 가동되었다. 그런 신뢰는 만해가 1912년 만주 신흥무관학교의 탐방 과정에서 나온 무관학교 학생들의 만해 저격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만해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고, 자신을 저격한 학생들의 행동을 애국적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이때 행한 어록은 국외에 널리 퍼져 나가 만해와 김구의 연결 촉매제가 되었다. 그리고 만해와 김구 사이에는 1930년대 중반 무렵부터 밀사(김형극)가 왕래하는 연락 라인이 구현되었다.

넷째, 이와 같은 만공-만해-김구에 구현된 독립자금 전달, 루트에는 정신적인 독립운동, 대중을 배경으로 하였던 대승불교·민족불교, 3·1정신의 계승이라는 이념이 흐르고 있었다.

지금껏 만공, 만해, 김구에서 구현되었던 독립운동의 비사, 독립자금의 전달, 대승불교와 민족불교, 대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소묘를 하였다.

참고문헌

- 『만공의 항일정신』(자료집), 수덕사, 2015.
- 김대은, 『觀音信仰』, 삼장원, 1978
- 김광식, 『한용운연구』, 동국대출판부, 2011.
- _____, 『춘성 - 무애도인·만해제자』, 중도, 2010.
- 강미자, 「김법린의 민족운동과 대중불교운동」, 『대각사상』 14집, 대각사상연구원, 2010.
- 김관호, 「심우장 견문기」, 『한용운사상연구』 2집, 한용운사상연구회, 1981
- 김광식, 「만해와 만공」,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0,
- _____, 「만공의 정신사와 총독부에서의 ‘禪機 發露(1937) 사건」, 『향토서울』 91호, 서울역사편찬원, 2015.
- _____, 「滿空의 민족운동과 遺教法會·간월암 기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6.
- _____, 「한용운의 만주행과 정신적인 독립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7.
- _____, 「3·1운동과 불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47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_____, 「3·1운동의 불교적 전개와 성과」, 『불교평론』 77호, 불교평론사, 2019.
- 이동연, 『안희제』, 독립기념관, 2010.
- _____, 「송도암 만공스님과 주기철 목사의 독립정신 비교」, 『만해학보』 18호, 2018.
- 한상길, 「백범 김구와 불교」, 『대각사상』 29집, 대각사상연구원, 2018.
- 한시준, 『김구』, 역사공간, 2015.
- 한동민, 「일제강점기 통도사 주지 김구하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대각사상』 15집, 대각사상연구원, 2011.
- 최범술, 「만해 한용운 선생」, <신동아> 75호(1970.11).

Abstract

Independence movement route of Mangong · Manhae · Kimgu

Kim G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is an insightful introduction to the transfer of independence funds, the roots of Mangong · Manhae · Kimgu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spiritual independence movement based on national Buddhism and the masses.

Mangong of study in Sudeoksa(수덕사) Buddhist monk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Kyunghee's(경허) disciples, Buddhist thought, Sehakwon(선학원). However, oral testimony has recently been raised that the mankind is enthusiastic and has transferred the independence movement fund to Han Yongun(한용운). Such a spirit of independence was implemented in 1937 in the Governor - General 's case, in 1941 a resistance Sehakwon, and To pray for independence in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 Sprints and disciples have been pursuing various projects to make network mangong - Manhae as an independent activist based on him. However, the national authorities have reserved for the selection of independent activists because of the lack of objective data Therefore,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look at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independent funds delivered to Han Yongun, the relevance of the capital, the secret communication channels that existed in the capital, and Kim Ku(김구,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in China). I hope this article will help you understand Han Yong-woon's national consciousness. Furthermore, I hope that it will be a stimulus for the deepening of

research on donations and independent funds provided to interim government in Japanese Buddhism.

Key words

Mangong, Manhae, Han Yongun, Kingu, independence fund, Seonhakwon, Pray for independence